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의 인문경관의 특성과 유산(遺産) 가치에 대한 탐색』 토론문

Geo-Jeju연구소 대표 김범훈

본 연구는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에 있어서 자연경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규명된 인문경관의 특성을 밝히고 이의 유산적 가치를 분석 또는 탐색한 것으로 발표자는 2020년 8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라산의 자연경관은 이미 세계적인 유산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인문경관이 더해지면 유산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인문경관에 대한 의미부여와 활용방안, 추가 인문경관 자원 발굴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한라산 인문경관에 대한 제주도민과 한국인의 인식비교 등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하며 연구 성과 및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가 그동안 미진했던 한라산의 인문경관 연구를 담론의 장으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라산이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이며 삶의 터전으로서 지속가능하게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서 한라산의 인문학을 구체화하는데 일정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 나름대로 몇 가지를 보완 또는 주문 의견을 내고자 한다.

1. 근본적인 문제로서, 연구 타이틀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한라산 국립공원지역과 접경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존 연구자인 정광중(2006)이 제시한 한라산의 실체와 영역에 대해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설정하는 시점,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 한라산을 제주도와 동일시하는 시점 등 3가지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기준으로 한라산을 제주도와 동일시하는 시점에 따른다면 사실상 제주도 전체의 연구결과나 다름없어서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발 5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인 경우 토지이용과 소유주의 다양성, 출입제한, 경관자원의 활용 여부 불투명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연구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설정하는 시점은 한라산체의 크기와 한라산의

영역(공간적 범위)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압축해서 고려하는 시점인데 한라산의 영역을 가장 작고 좁게 설정하는 과정이지만 한라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국립공원으로 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한라산의 인문경관을 연구하면서 국립공원지역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라산이 지나고 있는 한라산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문제부터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자가 <유산가치로 본 인문경관>에서 제시한 연속성, 확장성, 특이성, 역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도 스스로 배치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한정하는 공간적 범위는 국립공원의 보존 및 관리 차원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인문경관>으로 논제의 타이틀과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로서 최근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흐름을 제시할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경관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적으로 담론화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경관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함의 파악부터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한라산의 인문경관 나아가 한라산의 인문학을 구체화하는데 학제간 융합적 연구 및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인문경관의 유형분류에 있어 분류 기준의 전문성과 보편성 확보 문제

본 연구는 기초자료와 현장탐방을 통해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의 인문경관 특징을 시설·도로형, 1차산업형, 종교·제사형, 방어유적형, 기념물형, 풍수지리형, 신화·전설형, 예술·기록형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본 연구가 학술연구로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그러한 인문경관의 분류 기준을 일반적인 국립공원 관리차원의 자료인용도 일면 의미가 있겠지만 국내외 학술연구의 문헌조사와 명산(名山) 연구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타당성을 보강해 준다면 한라산의 인문경관 연구가 전문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산가치 인문경관의 경우, 판단의 근거 제시와 분석이 보다 학술적이어야

본 연구는 유산가치로 본 인문경관과 관련 7개 주제를 제시하면서 가치를 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연속성, 확장성, 특이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7개 주제가 앞으로 유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인문 경관으로 판단한 논거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분석내용 등을 보완한다면 학술연구로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